

## 박문국은 왜 인쇄인에게 잊혔는가?

# 겉은 한국인 · 속은 일본인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

오는 8월 17일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인쇄사인 '박문국' 이 문을 연지 꼭 1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문국은 우리나라 근대 인쇄를 개척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인쇄인에게는 거의 잊힌 존재가 됐다. 박문국 개관 130주년을 맞아 박문국은 왜 인쇄인에게 잊힌 존재가 됐는지 알아본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 세계 최고의 목활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고인쇄본이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인쇄문화는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대한인쇄문화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청주시 등 우리나라의 주요 단체 및 정부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인쇄문화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직지축제를 열거나 국제도서전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대 인쇄는 어떨까? 고인쇄보다 우리에게 가까운 시기지만 우리는 얼마나 근대인쇄에 대해 알고 있을까?

### 신문발행을 위해 설치된 박문국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인쇄사는 박문국으로 알려져 있다.

박문국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산하기관인 동문학(同文學)의 신문발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조선 말기인 1876년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를 시찰했는데, 인쇄사에서 책이 찍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서적 보급에 유용하리라 여겼다. 이후 1882년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에 고종에게 인쇄사 설립을 건의하게 된다. 1883년(고종 20년) 2월 박영효가 올린 건의를 받아들인 고종은 한 달도 되지 않아 규정을 만들도록 명하였고, 그해 8월 7일(음력 7월 5일) 지금의 을지로 2가 부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영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의 부속기관으로 설치했다. 동문학에 설치된 이유는 영어를 비롯한 서양 언어를 번역할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들은 것이 많은 박영효에게 규정을 만들라는 명이 떨어졌고, 급진 개화파인 김옥균·서광범 등이 대거 참여했다.

### 1883년, 한국 인쇄역사에서 큰 분기점

1883년과 박문국은 한국 인쇄 역사에서 커다란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 그해 한국 최초 근대식 인쇄사인 박문국이 세워졌으며, 박문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발행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문국은 조선 시대에 두루 쓰이던 목활자가 아닌, 당시로서는 신식이었던 납으로 만든 연활자를 사용했다. 활자 크기는 0.4×0.7cm로 4호 크기였다. 연활자는 이전의 목판이나 동활자에 비해 활자가 작고 주조가 편리하며 대량인쇄가 가능해 대중출판의 길을 열었다.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가 박문국의 첫 작품이다.

인쇄기는 발로 밟아 작동시켰기에 족답식으로도 불린 일본 쓰꾸지 활판소 제작의 소형 수동 원압식 활판기를 활용했다. 활자와 인쇄기는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다.

그 뒤로 1884년에 한국 최초의 민간 인쇄사인 광인사가 설립됐고, 1885년에는 한국 최초의 학내 인쇄사인 배재학당 내에 근대식 인쇄사가 설립됐다. 1886년에는 마침내 한글 연활자가 제작됐다.

### 한성순보, 매호 3000부 발행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 외국의 문물을 소개하고 정부의 시정방침과 각 지방의 장계, 관리들의 임면, 물가동향 등을 폭넓게 알렸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발행부수는 의외로 많았다. 단편적으로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매호 3000부 정도는 발행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부수를 발행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신문 발행이 국민의 교화와 나라의 근대화라는 원대한 목적에 부합했기에 가능했다. 적어도 3000부 내외의 신문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고위관리들과 지식층에게 배포됐다면 그 영향력은 매우 컸을 것이며 그 효과도 지속적으로 누적돼 개화운동과 후에 나타난 민간 신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대상 독자는 주로 관리들이었지만 전국 각지에 고루 배포됐으며 일반인과 외국인들까지 읽었다는 기록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신문이 우리나라의 개화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박문국과 한성순보이지만 인쇄역사에서는 스쳐지나가고 만다. 지금 우리는 박문국과 한성순보에게 단지 '최초'라는 이름만 붙일 뿐, 그것을 기념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이는 언제 만들었느냐보다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문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

### 일본인 편집장이 실질적 운영

박문국은 조선시대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신문사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편집국장이 외국인, 그것도 일본인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박영효가 만든 규정에 따라 박문국에는 총책임자를 두되, 한성부의 판윤·좌윤·우윤 가운데 한 사람이 겸임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서원을 두 명 뒤 이들로 하여금 번역·교정·인쇄·회계의 일을 맡게 했다. 다만 번역은 따로 두 명을 두는데, 한 사람은 내국인,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하기로 했다.

박문국 초대 총재에는 민영복·김만식 등의 당상관을 임명했으며, 후쿠자와 유키치가 파견한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에게는 편집국장 격인 고문을 맡겼다.

### 일본, 기술자·인쇄기·활자 적극 지원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노우에 가쿠고로를 박문국에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인쇄 기술자와 인쇄기, 인쇄 활자를 주선하는 등 박문국 설치를 적극 지원했다. 후쿠자와의 속셈은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일본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박문국 운영은, 조선인 관리가 배치됐음에도 후쿠자와의 의도대로, 실제로는 일본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맡게 됐다. 또한 후쿠자와의 지시를 받는 이노우에는 출판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급진 개화파와 어울리면서 조선 정치에 깊이 관여했다. 심지어 급진 개화파 인사들에게 무기 구입을 주선하기도 했다.

### 박문국의 계승자는 어디?

고종때 통리아문에 박문국과 제중원이 창설됐다. 박문국은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중심이 돼 운영됐다면 제중원의 호러스

앨런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제중원의 호러스 앨런은 한국 근대화의 상징으로 조선에 서양 근대 의학을 처음 도입한 '한국 의학의 아버지'처럼 추앙받고 있으나 박문국을 운영했던 외국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는 치열하게 서로 자기들이 제중원의 정통 계승자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문국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기관은 아무 곳도 없다. 또한

박문국에서 발간한 '한성순보'가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이라는 역사성은 인정하지만 정작 신문의 날은 '독립신문' 창간호가 발행된 4월 7일로 하고 있다.

### 기념비조차 없는 박문국

1403년(태종 3년) 승정원의 직속기관으로 주자소가 설치됐는데, 주자소는 왕립 활판인쇄사로 활자의 제조 및 보관, 인쇄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다. 이곳에서는 계미자를 시작으로 경자자와 갑인자 등 다양한 금속활자를 주조하고 인쇄했다. 주자소는 지금의 충무로 극동빌딩 자리에 위치했는데, 현재 극동빌딩 앞 인도에는 '주자소 터'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박문국은 어떨까? 박문국은 한성부 남부 훈도방 저동의 영희전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의 중부경찰서 자리다. 박문국은 찬란했던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문화를 잊지 못하고, 일본의 도움을 통해 근대 인쇄를 도입했다. 박문국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 인쇄시설은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였기에 우리는 박문국과 한성순보에게 '최초'라는 기록만을 남겼을 뿐이다. Ⓞ



박문국은 한성부 남부 훈도방저동의 영희전 자리에 있었다. 중부경찰서 앞 영희전터임을 나타내는 비석.